

나의 해방일지 中 염창희 역

‘나의 해방일지’ 13화 창희와 아버지의 대화

아버지: 그래서 앞으로 뭐할건데?

창희: 당분간 아무것도 안할라구요

아버지: 당분간 얼마나?

창희: 아버지, 형한테 하던거 반의 반만. 저한테 하시면 안돼요?

형은 안보이면 어디 아픈가 밥은 먹었나 그렇게 애지중지 마음쓰시면서 어떻게 저한테는, (고개를 돌린다)

제가 뭐 그렇게 썩 잘나진 않았지만요, 저 그래도 밖에서 욕먹고 다니진 않아요.

일하다 보면 인간 아니단 싶은 애들 많은데, 저 밖에 나가서 아버지 누구냐는 소리 한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.

며칠 전에 회사에서 나온거라고 집에 갖고 온 것 그것도 저 그만둔다니까 점주들이 준거예요.

제 결혼식에 꼭 오겠다고 축의금 50만원 예약한 사람도 있어요.

근데 뭐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다 괜찮았냐? 아니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.

아버지는 하루종일 한마디도 안하고 기계랑만 일해서 사람이랑 일하는게 그게 어떤건지 몰라요.

근데 그래도 얼굴 붉히지 않고 험한 꼴 안보고 선물 받고 나왔잖아요 그럼 된거잖아요.

제가 뭐 영원히 논다는거 아니잖아요.

그냥 그동안 수고했다, 좀 쉬어라, 그래주시면 안돼요?